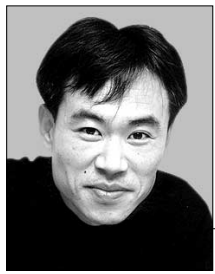


지금 한국 사회는 커다란 싸움판 같다. 싸움의 종류와 방식도 다양해서 '무규칙이종격투기'를 보는 기분이다.

이라크 파병, 과거사, 국보법 개혁, 행정수도 이전, 고교등급제 파문, 사립학교법 개정, 서울 강·남북간의 격차 등 일주 생각나는 것만 꼽아도 복잡한 전선(戰線)이 그려진다.

복잡한 전선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원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과거처럼 민주대 반민주처럼 선명한 대립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좋게 보면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생략된 뒤늦은 성장통으로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흡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양상으로 치닫은 측면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과 집단간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무자비한 경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듯하기 때문이다. 또 문제는 싸움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들이 개혁 대 반개혁 혹은 진보 대 보수로 전선을 단순화시키려는 데 있다. 이런 싸움 구도에서는 환경이나 교육, 청년실업, 그리고 민생 문제 같은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이를 모를 리 없다. 하



불자 세상보기

윤 세 학
동화 작가

셋강 받아들이는 큰강처럼

지만 현재의 정치 행위는 마치 선거 국면처럼 피아(彼我)를 가르느 데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치 행위도 정당의 대의 행위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본의와 관계없이 현정부의 개혁이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불백'이 돼 가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의의 '다양성'은 실질될 수밖에 없다. 여론에 귀 기울이라는 원로의 충고도 소용이 없다.

혹백 논리로 피아와 선악을 가르느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를 떠난 목소리로 정치적 차원에서 색깔이 덧칠해질 위험성이 있다. 최근 국보법

개폐 논란의 와중에서 나온 조계종 범장 총무원장의 "국보법이 과거 인권을 탄압하는데 쓰였다 해도 지금 안 쓰면 되는 게 아니냐"는 발언이나, 김수환 추기경의 "국보법 폐지는 힘든 상황이다. 모든 문제에서 갈라서는 '남남분열'이 큰 걱정"이라는 말도 정치권의 흑백논리로 재단하면 얼마든지 반개혁으로 비칠 수 있지 않은가.

고대 중국의 관리 중에 '채시관(采詩官)'이 있었다 한다. 그의 직무는 각 지방의 민요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통치자는 그와 같이 수집된 민요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그것을 통해 자

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개선의 자료로 삼았다 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어떤가. 다수의 의견보다는 '그때 두고 보라. 결국은 내가 옳을 것이다' 하는 과도한 자기 확신에만 투철한 인성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 그것이 과거의 독재와는 다를 지라도 계몽의 과잉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도 위험하다.

철저한 당파성에 입각한 처신이 의로운 자의 지혜로운 선택인 시절이 분명 있었다. 과거 유신시절이나 5공화국 시절이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다. 퇴행적 보수 세력이나 반개혁적 보수 언론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조차도 큰 흐름 속에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결코 무민이 아니다. 통치자는 큰 강물과 같아야 한다. 큰 강이 셋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류가 범람한다.

공자는 노나라 환공의 묘에서 어떤 그릇을 보고 낮빛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 그릇은 비면 기울어지고 차면 바로 서고 넘치면 뒤집히는 그릇이었다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본설위원 기명사설

설문조사 결과 조계종 스님들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뜻을 지니고 있고, 또 사찰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불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와 활동의 위상이 교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 가지 시사를 준다.

우선은 이렇게 높은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이 현실화되지 못하였는데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욕은 높은 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스님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직도 불교계의 사회복지가 본 계도에 오르지 못하는 원인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또 많은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복지불사' 원점에서 생각하자

그렇다고 하여 처음에만 거창하다가 생각이 않은 실패에 부딪쳐 좌초하는 성급한 추진은 처음부터 경계해야만 한다. 우선 기존의 불교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 그 시설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힘을 쏟아야 하는 시설을 핑계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기존의 시설들이 발전하고 거기에 종사해온 여러 전문가들이 보다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하여 새롭게 펼쳐지는 불교사회복지사업에 역군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불교계가 가진 사회복지사업의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하는 치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모범 사찰을 운영하여 거기에 서 나온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스님들이 투철한 출가자의 정신으로 자신을 낮추어 중생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다.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스님들이 변화하고 사찰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식 아래 새로운 각오로 바르게 출발해야 한다. "사찰이 사회복지 역할을 담당해야 불교의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 발표자의 말을 무겁게 들어야 할 것이다.

성대웅(한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중독

싸움터에서 백만을 이기기보다 나 하나를 이기는 자야말로 최상의 이긴 자이니라. <법구경>

알콜중독, TV 중독에 이어 이제는 인터넷이 중독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커뮤니티 전문 사이트인 싸이월드(www.cyworld.com)는 미니홈피라는 아이템으로 '싸이페인' 양성소가 됐다. 하루라도 싸이월드에 접속하지 않으면 금단증상이 일어날 정도로 광적인 네티즌들이 '싸이페인'이라는 영애(?)로 이름을 얻은 것.

디제인사이드의 '행자'로부터 출발한 인터넷 중독집단은 일종의 유행처럼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중에 이들이 양산해내는 콘텐츠를 접해보지 않은 이들이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부터 합성 사진, 패러디 영상에 이르기까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맺음이 네트워크 위에서의 관계맺음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이런 행위 주체가 '나'에서 '애착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몰두와 집중은 외부에 끄달리는 욕망이자 집착으로 변질된다. 부처님은 "욕망은 애착에 의해서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고 누구도 강조했다. 그리고 중독은 이 집착하는 마음에서 온다.

<수심결>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며 성내고 기뻐하고 울다 그르다 하는 행위와 동작은 그대의 본 마음이지 욕심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독은 결국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욕심이 익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익어서 하는 것이다. 마음한번 고쳐서 일생이 달라진다면 이제 나를 돌아보는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위의 주체를 '나'로 바꿔 '중독'이 아닌 '몰두'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강지연(뉴미디어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동국대 '추락' 하는가?

아침 <중앙일보>를 대하면서 올해도 여전히 당혹감과 짜증스러움을 동시에 느껴야 했다. 매년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동국대의 위상을 또다시 확인한 것이다. 학교를 떠나 십수 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모교에 대한 관심의 끈은 놓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내게 이런 소식은 정말 달갑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종단이나 대학당국은 동국대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될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앞섰다. 도대체 재단과 학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학교발전을 위해 재단 승려 이사 누가 얼마를 투자했더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늘 이사들끼리 이 권 다툼으로 싸움만 열중한다는 소리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동문들끼리도 모이면 재단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동국대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그러나 작년에는 일에 담기도 부끄러운 30위권에서 겨우 맴돌더니 이제는 동국대의 '동국'이란 글자조차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 선배들이 땀 흘려 일구어 놓은 명문사학의 명성에 무임승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학은 자존심이 생명이다. 제3자가 아닌 이상 동국대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

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동문들, 불자들이 자존심에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재현(부산시 사하구 하당동)

'불상수입' 개탄스럽다

불교미술품들이 수입되어 우리 것으로 사찰에 모셔지는 경우가 있다는 <현대불교> 기고문을 읽었다. 심지어 수입 불상에 열골부분만 우리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소중한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기능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단 말인가. 기능인들을 보다 많이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시기에 불교계에서 이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문화재는 모든 국민들의 것이고 후대에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의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전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불교계가 스스로 전통을 깨는 행위를 한다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먼 훗날 후손들이 보다 많은 불교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김로심(북대뉴)

거점사찰 학생회 설치 의무화

<현대불교> '위기의 사찰학생회' 기사를 읽었다. 사찰학생회가 어려움에 처해있

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문제는 이런 위기의식이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특별한 대책 없이 낮고 바라보고 있는 사이 청소년들과 불교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아이들을 사찰로 또는 불교화생활로 끌어오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불교계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기초조사부터 해야 한다.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심 거점사찰의 학생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불교 각 종단이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재정을 핑계로, 참여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청소년들은 불교를 한낱 역사의 산물로 밖에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석(서울 강동구 천호동)

12면 상식 퍼즐 정답

Table with 12 columns and 12 rows containing a crossword puzzle solution.

'연대' 민명

심민섭



Advertisement for Hae Dong Yong Gongsa (해동용공사) featuring a landscape image and text about a 3-day retreat and accommodation.

Advertisement for DRSaju (www.drsoju.com) featuring a cartoon of a person at a computer and text about a website creation service.